

우리나라 신문에 비친 도서관상

—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계’에 수록된 기사를 중심으로 —

허 선

(서울 강서도서관 사서)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2. 도서관 관련기사를 대하는 신문의 자세

III. 결 론

IV. 부 록 : 1995년 도서관관련기사목록

I. 서 론

사회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발전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비민주적인 제도 또한 제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역사속에서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와 반민주적인 정권에 의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한당해왔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기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

이제 90년대 한국사회의 특징을 말하라면 각자의 삶의 기반에 대한 천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흐름 자체가 선도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부분으로 눈을 돌리어

환경·여성·지역·소비·문화운동 등 대안적인 분야들이 자기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다시말해 민중의 개념보다는 시민의 개념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되어 각자의 삶을 충만하게 할 사회의 다양한 공공영역들로 시야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87년 민주화투쟁의 성과이고, 사회의식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공공영역들이 각자의 장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때만이 사회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민주적인 정치 제도들은 또한 다양한 공공영역의 발생을 확장시킨다. 또한 민주적인 정치제도들을 갖추는 데 있어 공공영역과의 의사소통을 역동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그리고 과거 권위주

의정권하에서 대화의 기회를 제한당한 경험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언론은 토론의 매개를 제공하고, 공공영역의 대변자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하는 것이다. 각자가 자기의 의견을 어떤 제재없이 자유롭게 표출하고 사회의 제부문들이 자기의 설 땅을 마련하기 위해 한결음씩 내딛는 모습을 언론은 보여주어야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권장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여러 가지 공공영역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정보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의 문화재부를 공유케하는 공공영역으로써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쌓아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진 문화재산을 다음세대에게 전수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 그 시대의 의견을 전달하며, 모든 시대의 정보를 차별없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곳이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어떤 특정계층에게만 열려진 공간이 아닌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정보를 분배해주어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조케하는 데 기여 하는 공공사회기관으로 보아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 서구에서 시민의 힘에 의해 일구어진 것이고,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하는 것은 사회공공영역의 하나인 도서관에 대해 언론의 대표적인 신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이다. 신문은 사회의 사실적인 사건들과 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

로 구성된다. 그러나 신문이 항상 사실적인 사건들을 기초로 한다 할찌라도 완벽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은 사건의 헤드라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기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분야에 담당 기자를 몇 명 파견할 것인가 등등의 기사편집방법과 신문사의 정책들로 신문사의 사회관을 알게 모르게 구독자들에게 전파시킨다—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다. 또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회분야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 예가 바로 요즘 한참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90년대 중반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아 사회의 주요논제로 등장하였고 심지어는 정부의 ‘삶의 질’이라는 정책으로까지 표출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학문의 역사가 사회복지분야와 거의 비슷하고, 그 사회적 역할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에서 특집기획기사로 다루져본 적도 거의 없고, 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도서관 전문가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언론의 대표적인 신문이 도서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도서관을 바라보는가를 살펴보고, 그 상황을 조사하여 그것을 근거로 사회의 공공영역의 하나인 도서관이 사회에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고, 언론은 도서관이 사회의 자양분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하는 데 장차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이다.

1) 신문에 등장한 것이 먼저이나, 사회의 분위기에 의해 주도된 것이 먼저이냐는 중요치 않다. 사회의 논제로 등장하였다 할지라도 사회복지분야의 담론을 확장시킨 것은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II. 본 론

1.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이 연구의 조사 표본으로 분석한 신문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계」에 수록된 “신문기사 속의 도서관”이라는 신문기사 목록에서 199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기타도서관, 독서, 출판 부분 중에서 독서와 출판부분을 제외한 도서관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문의 종류는 주요 종합일간지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도서관계」가 1995년 간행된 신문의 모든 도서관관련 기사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된다는 점으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기사는 아주 작은 단신이라도 모두 수록되어 있다는 표본의 신뢰도가 문제로 남는다. 또한 1995년이라는 1년의 기간만을 연구대상기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기사의 유형은 뉴스기사, 칼럼, 가십, 뉴스해설기사, 인터뷰, 연재기사, 인사, 부고 등등 여

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장 단순한 보도기사(스트레이트 기사)²⁾와 해설기사(또는 의견기사)³⁾로 이분하였고, 여기에 독자투고⁴⁾의 유형을 첨가하였다.

2. 도서관 관련기사를 대하는 신문의 자세

2.1 신문사는 ‘도서관’을 이해하고 있는가

도서관은 사회 각 계층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된다. 주민들에게는 일상정보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곳으로, 학생들에게는 부족한 학습공간을 대신할 곳으로, 일반행정부에게는 경제적 이익은 생산하지 않고 예산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사서에게는 사회에서 일고 있는 21세기 첨단 의 논의와는 거리가 먼 아직도 19세기의 모습으로, 사회적 인식없이 사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곳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요구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지 못한 채 서로의 이야기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언론은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의 각 분야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회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각분야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의 대표격

2) 어떤 사건에 대해 논평이나 해설 등을 가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한 신문기사나 잡지기사.

3) 신문이나 시사잡지에서 어떤 주요 사건의 배경과 원인, 의미,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해설한 기사. 객관적 보도기사와 특히 다른 점은 그 작성자나 필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4) 독자가 어떤 사건이나 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상 등을 써서 그것을 지면에 게재해 달라고 신문사나 잡지사에 보내는 것. 이러한 투고에는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일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 해당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기사 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이견을 제기하기 위한 것, 독자의 수필란에 게재해 달라고 보내는 수필 등이 있다.

인 신문은 사회발전을 돕는 한 분야로써의 도서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공부할 자리만을 마련해주는 곳은 아니다. 물론 입시위주의 교육체제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공부를 해야만 하고, 또한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적인 장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독서실'의 좌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도서관의 주목적이 도서관의 독서실화는 아닐 것이다. 도서관이 독서실로 인식된 것은 전후 경제개발만을 최우선으로 하던 시대에 각각의 가정에 자기의 공부방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제공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도서관을 독서실로 만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자료이용 중심이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독서실화를 지양한다 할지라도 도서관의 질적인 변화는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서관은 지금도 학생들에게 열람좌석을 제공하는⁵⁾ 독서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사회의 공적영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요즘도 '도서관에 일찍가서 좋은 좌석표 받아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만은 없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는 도서관의 변신노력이 1차적이지만,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또다른 공적영역인 언론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올바르게 심어주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보여진 것은 사회의 대변자라 자처하는 신문까지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분석한 대상기사들 중 기사내용이 많은 신문 중의 하나인 경향신문 '95년 7월 11일자(매거진 엑스의 1면)의 기사 제목은 바로 "새벽을 여는 도서관 사람들"이다. 이 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좌석표를 받기 위해 맨앞에 줄을 서는 4인에 대한 인터뷰기사이다. 이 면은 매일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데, 7월 11일자의 경우는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새벽잠을 자지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공간이 왜 도서관으로 설정되었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도서관을 대상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공부방화를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겨레신문 '95년 12월 6일자 "책 볼 시간

5)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의 일반열람좌석을 없애고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것은 아주 발전적인 움직임이지만, 세균에 의해 운영되는 독서실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각 중 시험·취업 준비자들은 이제 사비를 들여 독서실로 나가야할 것이다.

많은 공휴일 국립도서관 열었으면”이라는 제하의 독자투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독자투고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도서관이 매달 정기휴일이라는 이유로 … 백일장 때문에 쉬기도 하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는 도서관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도서관을 독서실로만 표현하고 있다.

신문사가 독자투고란에는 독자들이 투고한 다양한 의견을 게재한다 할찌라도 “고등학교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학원일 수 밖에 없으므로 입시에 필요없는 체육이나 음악 과목은 폐지하자.”라는 내용을 신문의 독자투고란에 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주요과목중심의 수업 편성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할찌라도 이는 대학만이 최고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 낸 것일 뿐 전인교육이라는 학교의 목표는 독자의 이름으로라도 신문이 거부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에는 도서관을 독서실로 당당히 요구하는 독자투고가 게재되었다.

반면 경향신문 '95년 3월 31일자에는 “佛, 세계최대 도서관 완공”이라는 제하로 프랑스의 새 국립도서관의 1조2천억원을 들여 3년 공사 끝에 장서 1,300만권을 갖추고 '96년 개관한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편리한 열람시스템과 많은 장서수, 정부의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건축가의 설계로 건립된 시설의 우수성을 독서실의 의미에서가 아닌 도서관적인 의미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한겨레신문 '95년 2월

14일자에서는 “도서관정보—어디에 어떤 자료 있나 집에서도 쉽게 검색”이라는 기사의 첫머리로 ‘도서관은 정보의 보고다. 자료가 가장 많은 곳이다’를 들고 있다. 이 기사 어디에도 도서관을 독서실로, 열람석으로 표현한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신문사들이 도서관을 생각하는데 이렇듯 혼란을 느낀다면 과연 구독자들은 어떠할까? 도서관이 이 경우는 열람석 중심의 독서실로, 저런 경우엔 정보의 보고이고, 문화의 산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신문의 독자들이 어떤 것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면, 신문의 역할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실에 대해 지적해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2 신문은 어떤 도서관을 다루는가

- 관종별 도서관 관련기사의 분석

도서관의 관종에는 봉사대상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공공도서관,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을 보조하는 학교도서관,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연구와 조사의 기반을 제공할 대학도서관,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특수도서관 등이 있다. 각 도서관마다 주요 이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고 역할도 조금씩 다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사회의 정신적, 역사적 축적물을 재분배하는 공공영역으로서 도서관의 이념에 가장 적합하고 필수적인 것이 공공도서관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이 사회에 바람직한 도서관문화를 정

착시키고, 사회의 훌륭한 버팀들을 만들어 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은 바로 학교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특수도서관은 시설이나 도서관 환경 등이 도서관학과 졸업자들 대부분이 취업하기를 희망할 정도로 다른 관종들에 비해 첨단을 걷고 있고, 스스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하다. 또한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자기 틀도 갖추고 있다. 반면에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아직까지 시설이나 장서수 등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일수록 언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신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실은 다음과 같다.

〈표 1〉 관종별 도서관기사

관종별 \ 건수	기사건수	비율(%)
국립중앙도서관	45	36.6
공공도서관	16	13.0
대학도서관	14	11.4
각종도서관	48	39.0
계	123	100

「도서관계」에서 분류한 도서관의 관종과 기사 수는 〈표 1〉과 같지만, 여기서 「도서관계」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분석에서 제외시키면 “도서관”의 개념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비슷한 비율인 13.0%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립과 공공도서관의 기사유형은 대부분이 행사 등에 대한 단신과 간단한 해설기사, 독자투고 대부분이지만,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특집으로 다뤄질 정도(중앙일보 '95년 1월26일자 “서울대학교 빈약한 도서관시설 ... 교수에게 박물관, 학생에게 독서실”)로 기사의 중요도가 크다. 해외 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23건의 분석기사 중 학교도서관은 한 건도 없었지만, 해외기사는 4건이라 3.25%에 불과하지만, 이 중 3건⁶⁾이 박스기사⁷⁾나 기획특집으로 처리가 되었다. 물론 해외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국내의 도서관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문제를 심도깊게 고찰·분석하기 보다는 기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과 독자투고만을 도서관기사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3 신문은 도서관의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독자투고 분석을 중심으로

기사의 유형은 한 주제분야에 대한 내용과 주

6) 경향신문 '95년 3월 31일 “佛, 세계최대 도서관 완공”

조선일보 '95년 2월 4일 “日, 전자도서관 생긴다 PC통신이용 문헌 열람, 전국 도서관 하나로 묶어”

중앙일보 '95년 2월 4일 “英, 공공도서관 책 대출 14%나 줄어”

7) 신문·잡지 등의 기사들 중에서, 사방을 패선으로 둘러싼 기사. 우리말로는 상자기사라고 하며, 또는 상자물이라고 한다. 주로 사설·가십·해설·미담기사·땀기사 등이 이러한 기사들이다.

제의 중요도에 따른 편집의도를 나타내고 기사 내용에 대한 의미평가도 반영하기 때문에 신문

사의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표 2〉 신문별 도서관관련 기사

신문 유형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비율(%)
보도	3	4	3	2	6	9	8	4	3	42	34.1
해설	7	2	7	3	10	7	10	2	10	58	47.2
투고	0	1	6	2	0	4	2	5	3	23	18.7
계	10	7	16	7	16	20	20	11	16	123	100.0

여기서 일간신문 2종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비교 대상으로 보자. 양적으로 평가했을 때 당연히 면수가 많은 조선일보가 우위를 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도서관계의 단신이나 뉴스를 전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기사의 비율은 45.0%, 36.4%이고, 해설기사는 35%, 18.2%로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다. 그러나 도서관기사중 독자투고의 비율을 보면 한겨레신문은 전체 11건 중 5건(45.4%)으로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는 전체 20건 중 4건(20.0%)을

게재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을 때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의 보도, 해설기사가 모두 도서관만의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독자투고만을 비교해보자.

독자투고란은 독자들이 실제로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생생하게 주고받는 곳이다. 또한 독자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의 언론관과 신문의 성격에 맞게 나름대로 조율을 거친다.

〈표 3〉 도서관 관련 독자투고의 내용분석

신문 유형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비율(%)
정책비판		1	1	1		3			3	9	39.1
건의			3	1		1	1	3		9	39.1
기타			2				1	2		5	21.7
계		1	6	2		4	2	5	3	23	100.0

그렇다면 국내 주요종합일간지 중 교수들에게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한겨레신문이 도서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공정할까?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전체 도서관 관련기사수가 적은 한겨레신문이 독자투고에 있어서는 조선일보보다 1건이 더 많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기타(도서관환경) : “사직동 시립도서관-식당 위생적 운영을...” ('95.3.16.)

도서관에 건의 : “도서관 비치 잡지물, 최신 창간 거의 없어” ('95.4.15.)

기타(사서의 대변) : “‘도서관 최신 잡지 없어’ 투고를 읽고” ('95.4.23.)

도서관에 건의 : “공공도서관 자료이용 직장인엔 그림의 떡” ('95.11.22.)

도서관에 건의 : “책 볼 시간 많은 공휴일도 국립도서관 열었으면” ('95.12.6.)

로 도서관에 대한 건의가 3건, 도서관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1건, 독자투고에 대한 사서의 답변 1건을 게재하고 있을 뿐 도서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전문적인 독자투고는 하나도 없다.

반면 조선일보는

도서관정책비판 : “체대로된 도서관 시설 필요” ('95.1.11.)

도서관에 대한 건의 : “복사기 못써 큰 불편-국립환경연구원도서관” ('95.3.20)

도서관정책비판 : “공공도서관 육성 지자체서 투자를” ('95.11.16)

도서관정책비판 : “한심한 공공도서관 제구실하는 곳 없어” ('95.11.29)

로 도서관에 대한 건의 1건을 제외하고는 3건 모두 도서관정책에 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적인 글들을 싣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단순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도서관의 운영방침들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한 수준이라면, 조선일보는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 도서관이 제구실을 못하는 원인, 그렇다면 도서관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의 수준까지 독자투고란에 담고 있었다. 공정하다는 것이 문제를 발견하면 제기하고, 사물을 발전적인 측면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라 했을 때, 신문의 성향과 도서관관련기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1995년 말 도서관계에는 일명 “교육문화회관 사태”라 불렀던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사서직관장보임의 규정을 회피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존재와 역할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도서관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기 위해 여러 신문사에 독자투고도 하고 담당기자들도 만나는 등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나 당시 11월~12월 2개월간 조사대상 신문들의 도서관관련기사 총 19건 중 당시의 현안을 다룬 것은 단지 독자투고 3건뿐이다.

국민 95.12.13 : 곳곳 공공도서관 역할 축소 조짐 일부 교육법 신법 반발·행정부재 여실

동아 95.11.20 : 공공도서관 편법운용 전문사서제
정착막아

한국 95.12.13 : 공공도서관 기능변경말라

물론 '95년 11월이 당시 최대의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문화담당기자들까지 모두 그 사건만을 취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11, 12월의 도서관관련기사의 유형 중 공공도서관명칭변경문제에 대한 해설·보도기사는 작은 단신으로라도 취급되지 않았다. 문화의 산실이고 정보의 보고라고 얘기하던 도서관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독서교실(조선일보 '95년 12월 29일)” 기사를 우선적으로 게재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의도 이상이 아닌 듯하다.

항상 사회 모든 분야의 현안을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이 신문의 특성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계의 주요현안은 신문의 특성에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도서관계는 신문에서 항상 주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못했던 것 같다. 항상 도서관의 제반문제에 대한 근본적치유를 목적으로 쓰여진 기사는 이번 조사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도서관은 정보화사회의 커다란 중심축으로 얘기되어지면서도 그 실상과 모두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왜 언론지상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III. 결 론

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기사 총 123건의 도서관 관련 기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의 유형에 있어 사실적인 소식들, 문화행사소개, 도서관 개관소식 등 단신의 성격을 띄는 기사가 많다.

둘째, 기사의 내용에서 우리의 도서관 현실에 대한 분석기사는 거의 없다. 해설기사와 할 지라도 도서관계소식을 설명하고 있을 뿐 우리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거의 없다.

셋째, 도서관기사에 접근함에 있어 도서관 전문가의 역할을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 하나의 칼럼기사인(독자투고) 서울신문의 “도서관현주소('95년 3월 10일자)는 서울대 도서관에 대한 최근의 통계를 보고 도서관이 도서관 다워야한다는 주제로 수필가 김광영씨가 기고한 것이다. 총 123건의 기사중 단 하나의 칼럼기사 조차도 도서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 현장의 사서와 문헌정보학교수는 배제되었다.

이 특징들이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문에서 도서관은 주요한 사회분야로써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은 신문사가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상(象)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동안

도서관이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지 못했던 사회적배경에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회발전을 이룩해왔기 때문에 도서관과 같이 공공의 성격을 띄는 사회 부문은 정부의 주요정책에서 제외되어왔다. 또한 도서관의 중심이 공공도서관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서관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한 사회의 발전과는 동떨어져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세계화시대라는 화두가 던져지고 있는 지금 아직도 전근대적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영역에 사회의 인식이 높을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관계는 사회의 중요한 공공영역으로 인정받기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오지는 않았다는 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사회적 상황이 나빠다 할지라도 도서관계가 계속 집단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인들은 별로 대사회적인 정치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기때문에 그동안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한 로비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언론에 의해 건강한 도서관 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가 언론의 도서관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언론 친화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언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 또한 벌여내야한다. 그리고 언론이 도서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기사를 썼다면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도서관인이 적극적으로 제기해야한다.

사서들 또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열람자의 투

고에, 도서관의 중심역할을 왜곡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사서들의 입장에서 적극 설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도서관은 사회의 공공자산으로써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한 사서들은 도서관을 통해 재분배될 그 공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한다.

또한 언론은 도서관이 공공영역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공유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들과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 문제제기함으로써 도서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신문화자산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계의 소식들을 전한다. 그러나 도서관 문제에는 도서관 내적인 부분-도서관 내부 운영방법 등-과 도서관 외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도서관 정책, 이용자들의 도서관문화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모든 언론이 도서관 내부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만만을 보도한다면, 도서관은 중심을 잃은 채 이용자들의 편의대로 이리저리 왔다갔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도서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만 한다면 도서관의 몇몇 비효율적인 운영방법들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언론은 도서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도서관이 인류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모든 사람에게 향유토록 함에 있어 장애로 나타나는 도서관계의 현실문제에 대해 밀도있게 분석하고, 도서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공공도서관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신문과 도서관은 모든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공영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언론이라는 권력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생산해낼 수도 있지만 도서관은 권력도 자본도 만들어낼 수 없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생활을 활력있게 하는 또하나의 공공영역을 무시한다면 권력과 자본이 있다할찌라도 신문은 사회의 공공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J. 키인. 언론과 민주주의. 서울 : 나남출판, 1995
 강성기. 신문소프트. 서울 : 정보성, 1991
 게이 터크만. 메이킹 뉴스. 서울 : 나남출판, 199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계. 1995. 2-12, 199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계. 1996. 1-2, 1996
 박기순·전리령 공저. 한국신문에 반영된 북한 '이미지'. 서울 : 소화, 1995
 박승관.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서울 : 전예원, 1995

송승섭. "한국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도서관문화> 1994. 3-4, v.35, no.2
 유팔무·김호기.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 한울, 1995
 차배근 외. 매스컴대사전.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93
 허버트 설러. 문화(株) : 공공의사표현의 사유화. 서울 : 나남출판, 1995
 한겨레신문 1996. 5. 3. : 공정한 언론이 민주주의 정착 바탕...

IV. 부록 : 1995년 도서관관련기사목록

경향신문

95. 3. 31.(해설); 佛, 세계 최대 도서관 완공-1兆2千억원 들여 3년 공사. 장서 1, 300萬권... 내년 개관
95. 4. 21.(해설); 문화사각지대 좁힌다-문체부 주관 「움직이는 문화교실」6년째 국민 들 호응속에서 진행-올해는 '선사인의 생활' 주제로 서울역에서
95. 5. 16.(해설); 서울 시민 도서관이용 6%뿐
95. 6. 4.(해설); "꿈의 전자도서관" 98년 개관-서울대
95. 7. 11.(해설); 새벽을 여는 '도서관 사람들'-국립도서관 입실을 기다리는 맨앞의 4인...그들의 새벽은 무엇인가
95. 7. 19.(보도);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95. 8. 30.(해설); 9월은 '독서의 달' 주요 도서관관련단체 행사 일정 국립중앙도서관 한 국만화의 어제와 오늘전
95. 9. 2.(보도); 성남시립도서관 4곳 건립 '97년까지 수정, 중원, 분당에 2000석이 상 규모
95. 10. 13.(해설); 개관 50돌 맞은 국립중앙도서관 김용문 관장-"단순 열람기능 탈피 '정보의 메카'로"
95. 10. 17.(보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돌 기념 축하연

국민일보

95. 1. 10.(보도); 서울대 병원 환자용도서실 개설...2천5백여권 비치-증세에 따라 맞는 책 권유
95. 3. 8.(보도); 연변과학기술대학의 밤-도서관 등 건립특위구성
95. 3. 13.(해설); 점자도서관 부지 "고민"-서울시 강동구
95. 4. 27.(보도); 수원 「선경도서관」개관...市에 기증
95. 10. 13.(해설); 국립중앙도서관 50돌 기념행사
95. 10. 17.(보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식
95. 12. 13.(투고); 곳곳 공공도서관 역할 축소조짐 일부 교육법 신법 반발·행정부재 여실

동아일보

- 95. 1. 5.(투고); 국립도서관 일부 이용객 책 찢어가다니 너무 한심
- 95. 2. 18.(투고); 국회도서관 이용 불편…논문복사 허용 확대를
- 95. 2. 21.(투고); 시립도서관 책대출 안돼, 집에서 볼 수 있게 허용을
- 95. 2. 22.(해설); “전화번호부 열람실 아시나요”…61년 이후의 것 모두 비치, 복사대출가능
- 95. 4. 22.(해설); “초고속 통신망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기획단에 서는 공공운영서비스 26개를 선정 내년부터 실시—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PC를 통해 이용가능
- 95. 4. 25.(투고); 국회도서관 이용 불편—회사원 재직 증명 요구
- 95. 4. 28.(보도); 「움직이는 도서관」 5월부터 운영—국립중앙도서관은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5월부터 「움직이는 도서관」운영
- 95. 6. 4.(해설); 서울대 “전자도서관” 세운다.—사회과학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컴퓨터 통신망 통해 국내외에 정보제공
- 95. 7. 7.(해설); 외국문화원은 정보문화 공간—책, 시청각자료 다양…어학강좌 운영도
- 95. 7. 12.(투고); 쓰레기 소각장 가까워 광주무등도서관 악취
- 95. 7. 23.(해설); 기다렸던 여름휴가 ‘일상’털고 책속으로…—국립중앙도서관 한우리 독서운동 추진본부 추천서 소개
- 95. 9. 29.(보도);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 ’95 가을판 나와—
- 95. 10. 12.(해설);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돌
- 95. 10. 17.(보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돌 기념 축하연
- 95. 10. 24.(해설); 공간 필요없는 전자도서관 미컬럼비아대학 ‘야누스시스템가동’
- 95. 11. 20.(투고); 공공도서관 편법운용 전문사서제 정착막아

서울신문

- 95. 2. 10.(해설); 서울대도서관 완전 전산화…80만 데이터베이스 구축, 21일 가동 전 국공립대와 연내 온라인 연결
- 95. 3. 10.(투고-칼럼); 도서관의 현주소—수필가 김광영 기고
- 95. 4. 11.(보도); 한국문학수상작 50년展(4. 12 ~ 22일)—국립중앙도서관은 제31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주요 문학상 수상작 전시

- 95. 10. 1.(해설); 문화의 달 전국서 다양한 축제
- 95. 10. 15.(해설); 국립중앙도서관 오늘 개관 50돌-특별 전시회-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 95. 10. 17.(보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돌 기념 축하연
- 95. 12. 11.(투고); 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개관 마땅 사서도 2부제 도입해 이용도와 야

세계일보

- 95. 1. 23.(해설); 지도제작 30년 외길 인생-김명택씨 지도 전문서점 운영...80평 열람 실 교통도 등 2만종 비치 지방고객 관람위해 일요일도 개원
- 95. 1. 29.(해설); 춘천시립도서관 영화상영 인기...매주 토, 일 '영화감상'3년째 운영
- 95. 1. 30.(해설); 신도림역 '민중생활도서관'3일 개관...전면개가식 15일간 3권이상 대출도
- 95. 2. 27.(해설); 산골학교도서관으로 개조...경북 안동 녹래도서관 장서 3,200여권 소장...주민에 큰 인기
- 95. 4. 5.(보도); 「도서관 문화강좌」개설-국립중앙도서관 주최 '95도서관 문화학교 제1기 강좌-강좌 내용은 「자녀독서지도」...
- 95. 4. 18.(해설); 전국 도서관 전산망 구축 박차-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 도서관 전산망 구축위해 「문헌자동화목록」등 속속 개발
- 95. 4. 24.(해설); 개인이 「잡지도서관」개설-개화기부터 발간된 책자 주제-연대별 전시
- 95. 5. 12.(해설); 「작은 도서관 운동」평가모임
- 95. 5. 30.(보도); 대학도서관 변혁사료-부산대 김정근교수의 한국의...출간
- 95. 5. 30.(보도); 終戰50波 사진전 마련
- 95. 6. 6.(해설); 서울대 사회과학정보센터 98년 설립 대학생활도서관 설립 붐-학생들이 직접운영
- 95. 6. 26.(해설); 해외유출 고서 2,152권 영인수집-국립중앙도서관 9년간 추진
- 95. 9. 5.(보도); 독서의 달 문화행사 꾸집 첫 독서문화상 시상...전국도서관대회 등 열려
- 95. 10. 17.(해설); 개관 50돌 중앙도서관 청사진 제시
- 95. 12. 26.(보도); PC통신에 출판최신정보 제공-중앙도서관 내년부터 데이콤 등 4개

사 대상 도서마다 고유번호 부여 간편하게 검색가능

95. 12. 26.(보도); 초-중학교 「겨울독서교실」

조선일보

- 95. 1. 7.(보도); 좋은 책 읽어 마음의 눈 밝힌다.-서울 남산도서관 독서교실 중학생
- 95. 1. 11.(해설); 서울대 병원 환자용도서실 개설...2천5백여권 비치-증세에 따라 맞는 책 권유
- 95. 1. 11.(투고); 제대로된 도서관 시설 필요
- 95. 1. 12.(해설); 도서관 책 PC로 읽는다...장서 디지털화 컬럼비아대학도서관
- 95. 1. 12.(해설); 주부들 뜻모아 주민도서관 운영-신도림 현대APT 101동
- 95. 2. 4.(보도); 日, 전자도서관 생긴다 PC통신이용 문헌열람, 전국도서관 하나로 묶어
- 95. 2. 13.(해설); 서울대도서관...대학을 '괴학원'아니게
- 95. 3. 7.(보도); 美의회도서관 안방서 이용-인터넷을 통하여
- 95. 3. 20.(투고); 복사기 못써 큰 불편-국립환경연구원도서관
- 95. 4. 20.(해설); 4. 19 도서관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
- 95. 5. 17.(보도); 가정의 달 책잔치 행사-독서왕선발대회, 독서가족 백일장
- 95. 6. 4.(해설); 서울대에 "디지털전자도서관"-전세계 사회과학정보 자유롭게 이용. 에스콰이어 회장 20억 출연...98년 완공
- 95. 7. 22.(보도); 점자도서관 암사동에 건립 지하철 5호선 점자안내관
- 95. 9. 29.(보도); 책 논문 55만건 담은 CD-ROM 나왔다
- 95. 10. 12.(보도); 제9회 책의 날 기념식-독서-출판문화 공로자 표창도
- 95. 10. 14.(해설); 개관 50돌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사회 선봉" 선언
- 95. 10. 17.(보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돌 기념 축하연
- 95. 11. 16.(투고); 공공도서관 육성 지자체서 투자를
- 95. 11. 29.(투고); 한심한 공공도서관 제구실 하는 곳 없어
- 95. 12. 29.(보도); 겨울방학을 책과 함께-국립중앙도서관 등 「독서교실」열어

중앙일보

- 95. 1. 6.(보도);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사회관내 인포어린 이도서관

- 95. 1. 8.(투고); 도서관 입실학생 제한...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 재고해야
- 95. 1. 10.(해설); 공공도서관 책 보유 果川 1위
- 95. 1. 12.(해설); 과학기술전문도서관 생긴다...과기처추진 KAIST도서관 확대 전 자료 DB화
- 95. 1. 20(보도); 청소년 독서논술강좌-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가족열람실
- 95. 1. 25.(보도); 도서관 주부 교양학교...송파도서관 26일부터 모집
- 95. 1. 26.(해설); 서울대학교 빈약한 도서시설...교수에겐 박물관, 학생에겐 독서실
- 95. 2. 4.(해설); 英, 공공도서관 책 대출 14%나 줄어
- 95. 2. 13.(해설); 규장각...국보, 보물 등 포함 고문헌 24만여점 소장
- 95. 3. 20.(보도); 서울시립도서관-주부대상 「동화구연교실」
- 95. 4. 4.(해설); 전자도서관 안방에서 PC로 책 읽는다-한국도 97년까지 시범 개발 계획
- 95. 4. 17.(해설); 獨 프랑크푸르트에 첫 韓人도서관-주재원, 공관원 기증 장서 4천권
- 95. 4. 18.(해설); 中·高校도서실 유명무실-장서 낡고 신간 거의 없어 학생들 외면
- 95. 4. 19.(보도); 邑, 面, 洞 폐지 추진-청사는 복지센터, 도서관으로
- 95. 7. 23.(보도); 220여 도서관에 여름독서교실
- 95. 9. 12.(보도); 군립도서관에 족보실 설치(전남 강진군)
- 95. 9. 28.(해설); '95대학평가, 시설 및 도서관분석, 장서 백만권 넘는 대학 3곳뿐
- 95. 10. 17.(보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식
- 95. 11. 28.(해설); 9개 區에 도서관 건립
- 95. 12. 18.(투고); 도서관 복도·화장실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겨레신문

- 95. 2. 14.(해설); 도서관정보-컴퓨터통신 통해 '어디에 어떤 자료 있나' 집에서든 쉽게
- 95. 3. 16.(투고); 사직동 시립도서관-식당 위생적 운영을...
- 95. 4. 15.(투고); 도서관 비치 잡지물, 최신 창간 거의 없어(독자투고:김영희)
- 95. 4. 23.(투고); '도서관 최신 잡지 없어' 투고를 읽고, 공공도서관 예산 태부족 탓(독자투고:조윤희)
- 95. 6. 21.(보도); 마포도서관 내일 개관
- 95. 8. 30.(보도); 중앙도서관 부모학교...국립중앙도서관은 '자녀의 독서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9월1일부터 선착순 모집

- 95. 11. 7.(보도); 한국문헌목록정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5만여종 정보 담아
- 95. 11. 19.(해설); 작은 도서관 약대글방 후원 주민 큰 호응
- 95. 11. 22.(투고); 공공도서관 자료이용 직장인엔 그림의 떡
- 95. 12. 6.(투고); 책 볼 시간 많은 공휴일도 국립도서관 열었으면
- 95. 12. 9.(보도); 상남도서관 온라인 검색 서비스

한국일보

- 95. 1. 26.(투고); 공공도서관 부실...계기능 수행 못해-독자투고(박영현)
- 95. 1. 30.(해설); 백화점 '이색코너' 인기...진로백화점 3층에 무료도서관
- 95. 3. 21.(해설); 의학저널 원문CD-ROM-병원 대학도서관마다 구입 붐
- 95. 4. 1.(해설); "해외유출 문화재 되찾자"-한국청년회의소 汎국민 반환운동 100만명 가두 서명-모금활동 전개-
- 95. 4. 18.(투고); 도서관 지원 늘려 장서 확보 힘쓰길(독자투고:박지영)
- 95. 5. 20.(보도); 4. 19도서관 재건립-8월 철거 97년 완공
- 95. 8. 31.(해설); 교육부 대학도서관 DB구축, 첨단 학술정보센터 설립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투자 확대 계획
- 95. 9. 1.(해설); 독서의 달 9월 독서역전 마라톤 등 810가지 행사 풍성
- 95. 9. 1.(해설); 문체부 초고속 문화정보고속도로 2003년 완성 추진 지구촌 문화행사 안방서 즐긴다
- 95. 9. 20.(해설); "가만히 앉아서 이용객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미공공도서관 서비스 혁명
- 95. 10. 5.(보도);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 첫 개관, 잠실 한화백화점에
- 95. 10. 15.(해설);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0돌-소장자료특별전, 세미나 등 다채행사 내년 전자도서관 기공 정보의 메카로
- 95. 11. 21.(해설); 어린이에게 책을 빌려줍니다-사설 어린이 도서관 개관 잇달아 시립도서관 무료로 관외대출
- 95. 11. 28.(해설); 멀티미디어도서관 확산
- 95. 12. 13.(투고); 공공도서관 기능 변경말라-행정직 관장자리 마련위한 이기적 행태 '독서실'로 변모 추진 발상 시대 흐름 역행
- 95. 12. 23.(보도); "전국 공공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